

운동주 시의 창작원리 연구*

엄 국 현**

차 례

- | | |
|----------------------------|-----------------------|
| I. 창작원리 연구의 필요성 | IV. 기독교 시편의 시적 변용과 시론 |
| II. 박용철의 번역 시론과 운동주의 초기시 | 시 |
| III.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운동주의 순이 시편 | V. 화해와 인격미의 후기시와 시론시 |
|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운동주의 시가 박용철의 번역 시론과 순수시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은 운동주의 시에서 명상의 모티프나 시론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운동주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상의 모티프인데, 이 명상의 모티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찾는 과정에서 운동주의 시가 박용철의 문학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명상의 모티프는 박용철이 번역한 하우스만의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를 받은 것이다.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시론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운동주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괴로움과 공상, 동경과 우수의 모티프 역시 박용철이 번역한 키에르케고르의 시인론과 관련된 것이다.

초기시 이후에 씌어진 운동주의 순이 시편은 흔히 사랑을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순이 시편은 사랑시가 아니라 박용철의 순수시론을 형상화한 시론시로 보아야 하며, 순이 시편에 이어 씌어진 기독교 시편도 기독교 사상을 형상화한 시가 아니라 시의 창조 과정이나 창작 원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기독교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변용한 시론시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운동주 시의 숨겨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화해와 인격미가 그 미학적 특징인 운동주의 후기시는 시의 창작원리를 형상화한 시론시의 이론적 추상성을 극복하고 운동주 시인의 구체적인 삶과 개성적인 목소리가 배어 나오기 시작한 작품인데, 이 후기시 역시 순이 시편이나 기독교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와 시인의 모티프가 반복되고 있는 시론시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운동주 시의 창작원리는 영감과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운동주, 창작원리, 명상, 영감, 상상력, 시론시

I. 창작원리 연구의 필요성

운동주의 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대한 이해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자아성찰의 시가 지닌 정신적 깊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운동주 스스로 자신의 시에 나타나는 갈등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도 한데,¹⁾ 운동주의 시 가운데 순이 시편

이 특히 그러하다. 순이 시편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언급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다.²⁾

윤동주가 자신의 시의 창작방법이나 창작원리에 대해 말한 적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그의 시의 창작원리를 모르면 순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윤동주 시의 창작원리를 밝히는 실마리가 되는 작품이 순이 시편(「사랑의 전당」, 「소년」, 「눈 오는 지도」)이다. 순이 시편이 시의 창작원리와 관련된 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윤동주의 순이 시편이 명상과 관련된 시이기 때문이다.³⁾

윤동주는 1937년 그의 나이 21세 때부터 명상에 대한 시를 쓰고 있는데, 그의 시에 나타나는 명상은 그의 시에 ‘정신의 실존적 깊이’를 줄 뿐만 아니라⁴⁾, 그의 시의 창작방법이 명상에 바탕을 둔 영감이나 상상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순이 시편 이외에도 윤동주는 시의 창조성이나 시인의 사명과 고통을 형상화하기 위해 ‘태초’나 ‘계시’, ‘십자가’ 등 기독교적 이미지를 차용한 기독교 시편을 쓰기도 한다. 순이 시편을 비롯한 명상 시편이나 기독교 시편은 시의 창작방법, 시의 창조성, 시인의 사명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에 대한 시쓰기’인 ‘메타시’로 볼 수 있다.⁵⁾ 윤동주의 시

1)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74쪽.

2) 순이 시편에 대한 그 동안의 해석을 살펴보면 「사랑의 전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혹은 ‘연정’을 노래한 연애시나 ‘순결한 의지의 모티프’를 지닌 시로, 「눈 오는 지도」는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슬픔을 노래한 자아분열의 시로 파악되고 있다. 순이 시편은 ‘순결한 의지’나 ‘고독한 내적 성찰’의 시이거나 삶의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는 시로 이해되고 있다.(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365쪽. 이상섭, 『윤동주 자세히 읽기』, 한국문화사, 2007, 128쪽.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월인, 2003, 349쪽.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185-186쪽 참조.)

3)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 연구」, 『신어어문학』 1집, 2004, 11쪽 참조.

4) 폴 헤르나디, 『장르론』, 김준오 옮김, 문장, 1983, 194-195쪽 참조.

가운데 그 내용이 모호한 느낌을 주는 것은 운동주 시의 메타적 성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메타시를 ‘시학적 시’,⁶⁾ ‘작가 반영성’⁷⁾의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동주의 메타시가 박용철의 시론의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시론시로 부르하고자 한다.⁸⁾

이 논문은 II장에서 운동주 초기시에 나타나는 명상이나 영감이란 창작방법이 박용철이 번역한 시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 III장에서는 운동주의 순이 시편이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시편이 시의 창작원리인 상상력과 시의 창조 과정에 대해 형상화한 시론시라는 것, IV장에서는 운동주의 기독교시는 기독교 사상을 형상화한 시가 아니라 시의 창조의 특징이나 창작원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기독교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변용한 시론시라는 것, 그리고 V장에서는 운동주의 후기시의 미학적 특징과 함께 이들 후기시도 시와 시인의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론시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
- 5)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0, 제4판 25쇄, 252-253쪽 참조. 김준오는 메타시의 하위유형으로 시론시와 시인론시를 들고 있다.
- 6) 장미영, 『나르시스의 연못』,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15쪽 및 142-143쪽 참조. 장미영에 따르면 시학적 시란 “작가의 자의식과 문학의 자체 의미, 사회적 과제, 창작과정과 방법, 문학작품의 형식과 언어기법 등 시학적 동인을 중심에 두는 작품”(10쪽)을 말한다.
- 7) “작가 반영성이라 함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나 작가로서 지나는 예술적인 문제들이 작품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작품에서 예술작품의 영원성이나 예술의 본질 또는 작가와 상상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는 작가 반영적 언급이나 묘사는 작품들의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가 반영적 모티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문재, 「T. S. 엘리엇과 자기 반영성」, 『포스터 모던 T. S. 엘리엇』,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42-245쪽 참조.)
- 8) 운동주는 시론시 뿐만 아니라 시인론시도 창작한다. 그런데 코울리지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 바 있다. (이경옥, 「자유와 원칙의 화해: 코울리지의 시인과 비평가론」, 이상섭 외 20인, 『문학역사사회』, 한국문화사, 2001, 171-172쪽 참조.) 만약 그렇다면 시론시와 시인론시는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시인론시는 시론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II. 박용철의 번역 시론과 운동주의 초기시

운동주의 시가 자기를 성찰하는 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은 명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주의 자기 성찰의 시가 명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는 어디에서 명상을 배운 것일까? 운동주 시의 명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운동주의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주 시에 대한 첫 논문에서 필자는 운동주의 명상이 고독한 그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시인의 고독한 삶이 깊은 사색을 통해 자기를 분석하고 존재의 빛을 통찰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다.⁹⁾ 그 다음 「한란계」를 분석하는 논문에서는 「한란계」를 비롯한 운동주의 명상시가 걷기의 모티프와 관련되어 있으며, 운동주의 명상이 산책이나 순례와 관련된 걷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¹⁰⁾ 그리고 그의 시 「참회록」에 나오는 ‘구리거울’이란 이미지는 ‘古鏡’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고, ‘고경’은 주희와 퇴계의 시에 나오는 말로서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운동주의 구리거울 닦기가 퇴계의 옛 거울 닦기와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보고, 운동주의 ‘걷기명상’은¹¹⁾ 퇴계의 ‘왕래풍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기도 했다. 왕래풍류란 산수를 완상함으로써 심성을 도야하던 선비의 풍류를 말한다.¹²⁾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는 퇴계의 왕래풍류는 걷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동주의 산책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9) 엄국현, 「자기 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통찰』, 최상운 선생 회갑논총기념간행위원회, 2000, 179쪽.

10)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와 걷기의 모티프」, 『한국문학논총』 43집, 2006. 8, 203-204쪽 참조.

11)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걷기는 시적 화자가 걷기를 통해 명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걷기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와 걷기의 모티프」,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문학회, 2006. 8, 212쪽.)

12) 박영주, 『송강 정철 평전』, 중앙M&B, 1999, 200-201쪽 참조.

다. 그러나 퇴계가 자연을 관조할 때 나타나는 흥취를 즐긴다면, 윤동주는 자기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나 내면적 갈등과 대면하는 고통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¹³⁾

윤동주의 명상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윤동주가 시를 배우던 1930년대의 문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윤동주의 초기시와 뒤이어 나타나는 명상시는 박용철의 번역활동이나 순수시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의 견기명상도 박용철이 번역한 하우스만의 「시의 명칭과 성질」이란 시론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윤동주의 초기시는 괴로움과 공상, 동경과 우수가 그 특징인데, 이것은 박용철이 번역한 키에르케고르의 시론 및 시인론과 관련된 것이었다.

시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그 가슴 속에 심각한 고뇌를 감추고 그 탄식체음을 아름다운 음악같이 울려낼 수 있는 입술을 가진 불행한 사람이다.(《문학》 1, 1934. 1)

어떠한 종류의 미든지 그 발달의 극점에 가서는 민감한 사람의 가슴에 눈물을 짓는다. 우수는 모든 사람의 정조 중에서 가장 정당한 것이다. 영혼이 이를테면 그 유적의 버드나무 아래 쉬어 앉아서 머언 고향을 생각하는 동경의 한숨을 쉴 때에 그 영혼의 노래의 주조가 우수가 되지 않고 어쩔 것이랴.(《문학》 2, 1934. 2)¹⁴⁾

괴롭의 거리
희색빛 밤거리를
걸고 있는 이 마음
선풍이 일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 갈피 두 갈피

13) 엄국현, 「윤동주 시의 창작방법과 유교적 사유에 대하여」, 《김해문학》 20집, 2007, 18-19쪽 참조.

14)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126쪽에서 재인용.

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푸른 공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거리에서」의 2연. 1935년)¹⁵⁾

푸드른 어린 마음이 이상에 타고,
그의 동경의 날 가을에
조락의 눈물을 비웃다.(「창공」의 3연. 1935년)

어머니의 젓가슴이 그리운
서리 내리는 저녁-
어린 영은 쪽나래의 향수를 타고
남쪽 하늘에 떠돌 뿐-(「남쪽 하늘」의 2연. 1935년)

1935년은 윤동주가 고향을 떠나 평양 숭실학교에서 창작에 몰두하던 때다. 이들 초기시의 특징은 윤동주의 최초의 시들인 「초 한 대」, 「삶과 죽음」(1934년)이 보여주는 시세계와 상당히 다르다.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는 초의 위대함(「초 한 대」)과 죽음의 승리자인 위인을 노래하는(「삶과 죽음」) 등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던 윤동주의 시세계가 다음 해인 1935년에 와서 갑자기 외로움과 공상, 동경과 우주의 시세계로 급격하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동주가 고향을 떠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박용철이 《문학》지에 번역해 실었던 키에르케고르의 시론과 시인론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용철이 번역한 시론이 윤동주 시에 미친 영향은 초기시에 이어 씌어진 명상 시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윤동주는 1937년에 명상과 관련된 시편을 창작하는데, 이들 명상 시편(「달밤」, 「한란계」, 「명상」, 「산협의 오후」, 「창」, 「새로운 길」)은 박용철이 번역한 하우스만의 시론과 관련되어 있다. 하우스만의 시론은 창작과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나타나는 비

15)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1997, 초판 7쇄. 윤동주의 시는 모두 이 책에 따르며, 편이상 쪽수는 표시하지 않는다.

지성적인 창작심리인 영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시의 과정, 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좀 해 보려 한다. 점심 때 한 파인트의 맥주를 마시고 – 맥주는 뇌의 진정제라, 나의 오후의 시간은 나의 일생에 가장 비지성적인 것이 된다 – 나는 2, 3시간의 산보를 나가던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위의 것을 둘러보고 계절의 경과를 따르면서, 내가 걸어갈 때에, 내 마음 속으로 갑작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어느 때에는 시의 2, 3행이, 어느 때에는 한꺼번에 일절이 흘러 들어온다. (중략)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것을 적어 놓는다 – 다음날 영감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고 빈틈을 남겨놓고.¹⁶⁾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하는 가운데 영감이 찾아와 시가 떠오르는 작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운동주의 시 가운데 산책의 모티프를 지닌 시는 「한란계」, 「이적」, 「새로운 길」을 들 수 있다. 하우스만의 시론이 《문학》 제 2호에 소개된 것이 1934년 2월이고, 운동주의 「한란계」는 1937년, 「이적」이 1938년 작이다.

싸늘한 대리석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 맨 한란계,
문득 들여다볼 수 있는 운명한 오 척 육촌의 허리 가는 수은주,
마음은 유리관보다 맑소이다.

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씨올시다.
동저고리 바람에 언덕으로, 숲으로 하시구려-
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귓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16) 하우스만, 「시의 명칭과 성질」, 『박용철 전집』(평론집), 1977, 홍문관, 72-73쪽 참조.

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봅니다.(「한란계」의 1, 4, 5연. 1937년)

대리석 기둥에 매인 한란계처럼 억눌리고 갇힌 학교생활을 벗어나 언덕과 숲으로 산책하면서 자신의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는 시가 「한란계」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본래의 삶을 탐색하는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산책의 모티프인데, 이 산책의 모티프가 최초로 나타나는 1937년을 지나 1938년의 작품에 이르면 운동주의 시세계는 동경과 우수를 벗어나 평화로운 생명감을 노래하거나(「사랑의 전당」) 일상의 무거운 감정을 씻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통찰하여 가벼워지는(「이적」) 등 산책을 통해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세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창작된 것이 다음에 살펴볼 순이 시편이다. 「이적」과 창작일자가 동일한 「사랑의 전당」과 「소년」(1939년), 「눈 오는 지도」(1941년)가 그것인데, 이들 작품은 《삼천리문학》에 실린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하여」라는 시론과 관련이 있다.

Ⅲ.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운동주의 순이 시편

운동주 시의 중심적 주제인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가 최초의 시들(1934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박용철이 번역한 키에르케고르의 시론과 시인론(1934년)의 영향 때문에 고뇌와 동경, 우수의 시세계로(1935년) 바뀌게 되고, 하우스만의 시론(1934년)이 보여주는 산책과 영감이란 창작방법을 받아들였을 때는 명상 시편으로(1937-1938년)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하여」(1938년)¹⁷⁾를 비롯한 순수시론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운동주의 순이 시편인 「사랑의 전당」(1938년)과 「소년」(1939년)과 「눈 오는 지도」

(1941년)란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윤동주의 순이 시편과 박용철의 순수시론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시와 시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순아 암시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 감아라.
난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를 고루른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였다.

성스런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네게는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가 있고
네게는 험준한 산맥이 있다.(「사랑의 전당」. 1938년 6월 19일)

발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 버리고
황혼이 호수 위로 걸어들어
나도 사뿐사뿐 걸어 보리이까?

17) 한계전은 박용철의 시론 「시적 변용에 대하여」가 하우스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 바 있다.(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90, 초판 2쇄, 139-144쪽 참조.)

내사 이 호수가로
부르는 이 없이
불리워 온 것은
참말 이적이외다.

오늘따라
연정, 자혹, 시기, 이것들이
자꾸 금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 없이
물결에 씻어 보내려니
당신은 호면으로 나를 불러내소서.(「이적」. 1938년 6월 19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 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소년」. 1939년)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잘못된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안을 들여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조그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눈 오는 지도」. 1941년)

순이 시편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겉모습일 뿐 무언가 다른 것을 노래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게 영감을 의미하며, ‘영원한 사랑’, ‘들여다본다’, ‘황홀’, ‘아름다운 순이’, ‘꽃’ 등의 용어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말로 볼 수 있다. ‘순이’라는 여성 이미지는 마음속의 시적 상상력이나 예술적 형상 사유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꽃’은 작품을 상징하는 말이라 볼 때, 「사랑의 전당」은 연애시의 형식을 빌린 명상시(혹은 영감시)라 할 수 있다.

「사랑의 전당」과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이적」은 「사랑의 전당」과 마찬가지로 ‘호수’라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와 「기교주의설의 허망」을 읽어보면 이 ‘호수’란 이미지는 ‘산맥’과 함께 영감을 상징한다. 「이적」은 비록 순이라는 이름이 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감을 노래하는 순이 시편에 속하는 시라 할 수 있다.

「사랑의 전당」이 촛불명상을 통해 찾아오는 영감의 미묘함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적」은 산책을 통한 명상의 이적을 노래한다. 강물 속에 순이의 얼굴이 어리는 것은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는 유추가 가능한 「소년」은 직관과 명상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¹⁸⁾ 「눈 오는 지도」는 예술적 형상 사유의 초현실적인 신묘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¹⁹⁾ 순이가 떠나면서 남긴 발자국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 「눈 오는 지도」의 대강의 내용인데, 순이가 영감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꽃은 작품을 의미한다. 순이가 가는 곳을 알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은 작품 창조의 신비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순이 시편과 관련된 박용철의 시론 「시적 변용에 대하여」와 「기교주

18) 김재홍은 「소년」에서 나타나는 “자연 친화와 교감의 정신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관류하는 중요한 특질이 되는 것”이라고 본 바 있다.(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96, 7쇄, 473쪽.)

19) 엄국현,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해석』, 2000, 182-183쪽 참조.

의 설의 허망」을 이들 작품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피 가운데로 용해한다. 무슨 솜씨가 피 속에서 시를, 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느냐? 변종을 만들어내는 원예가. 하나님의 다음 가는 창조자. 그는 실로 교묘하게 배합하느니라.

사람은 전 생애를 두고 될 수 있으면 긴 생애를 두고 참용성 있게 기다리며 의미와 감미를 모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열 줄의 좋은 시를 다만 기다리고 일생을 보낸다면 한 줄의 좋은 시도 쓰지 못하리라. 다만 하나의 큰 꽃만을 바라고 일생을 바치면 아무러한 꽃도 못 가지리라. 손을 펼 때마다 꽃이 나오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르려면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 한다.

시인의 심혈에는 외계에 감응해서 혹은 스스로 넘쳐서 때때로 밀려드는 호수가 온다. 이 영감을 기다리지 않고 재주 보이기로 자주 손을 버리는 기술사는 드디어 빈손을 버리게 된다.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잉태시키고는 수태를 고지하고 떠난다. 우리는 처녀와 같이 이것을 경건히 받들어 길러야 한다.

시는 시인이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재료 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느 순간의 시인의 한 쪽이 혹은 원통이 변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위해서 이미 수천언을 버려 놓았으나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이 모두 미래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시인으로서나 그저 사람으로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두에 한 점 경경한 불을 기르는 것이다. 라마고대에 성전 가운데 불을 정녀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작열할 수도 있고 연기와 화염을 품으며 타오를 수도 있는 이 무명화. 시인에 있어서 이 불기운은 그의 시에 앞서는 것으로 한 선시적인 과제이다.《삼천리문학》 창간호 소재)²⁰⁾

우리가 우리의 정신 가운데 귀중하다고 평가할 만한 상념이나 정념의 성립을 알았다하자. 우리의 정신의 산맥 가운데 가끔 가다 불끈 일어서는 이 고봉을 흔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반 거기 신비의 옷을 입힐래서가 아니라 그 성립을 자유로 조종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 없

20) 『박용철 전집』(평론집), 3-10쪽 참조.

는 까닭이다.

우리는 그것의 표현을 향한다. 우리는 한 가지 가슴에 몽얼거리는 덩 어리를 가지고 언어 가운데서 그것에 가장 해당하는 표현을 찾으려 헤맨 다. 언어의 원 세계를 살살이 뒤진다. 이렇게 써놓고 보아도 아니요 또 달리 써놓고 보아도 그것이 그것은 아니다. 이 소위 作詩苦라는 것은 체험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순수시론자이요 레오나드 다빈치 방법론 서설의 저자로 지성의 계획 의 가장 과감한 주장자인 발레리로도 시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의의 탄 을 발한 것을 보면 시의 기술이란 그리 유한한 장기놀이인 아닌 것 같 다.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음향을 가진 단어들은 충돌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여서 그 한 단어의 의미나 몇 단어의 의미의 논리적 총화로서만은 측정할 수 없는 미묘하고 무한히 전파해가는 효과를 우리 심리에서 일으킨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길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가 시의 길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시의 길은 그렇게 정진을 전심을 요구한다.

창작과정의 비밀을 밝히려 하는 이 모든 노력을 비난하여 「시는 마 술이요 시의 창작과정은 과학적으로 불가해의 것이라고하는 사상이라」 고 하는 일이 있다.(소화 11년 《조선일보》 소재)²¹⁾

「사랑의 전당」에서 순이가 언제 들어온 것인지 모르게 왔다가 떠나거나, 「이적」에서 호수가로 부르는 이 없이 불러 오거나, 「눈 오는 지도」에서 가는 곳도 모르고 순이가 떠나는 것은 신비한 영감이 우리에게 시를 잉태시키고 떠난다는 박용철의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영감의 신비함에 대해 박용철이 ‘호수’와 ‘산맥’, ‘고봉’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면, 윤동주의 순이 시편에서는 ‘호수’와 ‘산맥’의 이미 지나 종교적 ‘이적’과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다. 박용철이 라마고대의 성전에서 영감의 불을 지키는 여성을 정녀라고 부르고 있다면, 윤동주는 영감을 순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21) 『박용철 전집』(평론집), 18-25쪽 참조.

박용철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시 창작의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것을 조화시키고 변용을 주도하는 상상력에 대한 설명이다. 영감은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상상력으로 불리게 되는데,²²⁾ 이것이 윤동주의 초기시에서는 하우스만이 지적인 이른바 ‘윳트’²³⁾나 모순어법의 기법으로 나타나며, 후기시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사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화해’²⁴⁾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소년」에서 순이의 얼굴이 사랑처럼 슬프다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언어인 사랑과 슬픔을 결합하는 상상력의 창조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며,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물감이 든다는 것과 황홀히 눈을 감고 볼 때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는 것은 시적 경험이 직관과 감정이입, 명상과 영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22) 시를 낳게 하는 데 영감이 우연적 섭리에 의존한다면, 상상력은 영감이 동기가 되어 시를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지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권기호, 『시론』, 학문사, 1983, 84쪽 참조.) 낭만주의는 문학 표현론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공된 문예사조이며, 표현론의 최초 형태는 영감론이다.(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0, 재판, 140-144쪽 참조.) 상상력이란 관찰 대상을 변형시키는 힘인데, 블레이크에게 상상력은 궁극적 현실인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영적 지각이며, 코울리지에게 상상력이란 관찰 대상을 변형시키는 힘이다. 보통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인의 정신능력은 단순한 관찰의 차원을 뛰어 넘어 명상의 경지에 이른 경우 그 모습을 드러낸다. 상상력은 이때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시키고, 변용을 주도하는 정신능력이며, 이런 정신능력은 모순어법에서 잘 나타난다.(장경렬, 『코울리지: 상상력과 언어』, 태학사, 2006, 44-74쪽 참조.)

23) “이 윳트라는 것은 근대적 의미의 윳트가 아니라 존스박사가 상이한 이미지(물상)의 결합 혹은 외양으로 상이한 사물 가운데서 은비한 유사의 발견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것이 17세기 영국의 지식계급이 50년 이상을 두고 시 가운데서 주로 찾고자 하고 발견하던 유락이다.”(하우스만, 「시의 명칭과 성질」, 『박용철 전집』(평론집), 54-55쪽.)

24) “서로 이질적인 사물들이 어우러져 평형을 이루는 것을 화해라 한다.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는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사물이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백승도·이보경·양태은·이용재 옮김, 푸른숲, 1999, 129-130쪽.)

있다.²⁵⁾

「소년」에서 영감을 상징하는 순이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상상력’의 가장 탁월한 활동 그 자체’인 미를 나타내는 것이며,²⁶⁾ 명상의 체험도 아름다움의 또 다른 경험이다.²⁷⁾ 시인을 시인으로 만들고 있는 본질적인 힘이 소년 속에 응집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릴케의 말²⁸⁾은 이 시의 제목과 내용에 나오는 ‘소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소년을 시인으로 바꾸어 이 시를 읽을 때 「소년」이란 시가 보다 잘 이해되는 것은 「소년」이란 작품이 시 창작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며, 박용철이 말한 “창작과정의 비밀을 밝히려 하는” 시론시이기 때문이다.

「눈 오는 지도」의 눈이 내리는 겨울 거리를 순이가 떠나며, 눈이 녹으면 그 발자국마다 꽃이 핀다는 것은 박용철이 말한 시 창조의 고난과 긴 기다림 뒤의 시적 창조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랑은 혼연일체로서 전체성을 실현하며,²⁹⁾ 슬픔은 무언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³⁰⁾ 볼 때, 순이 시편에 나타나는 사랑과 슬픔은 일상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명상과 영감, 상상력, 직관, 감정이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작심리와 관련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시적 창조가 영감과 직관, 감정이입, 상상력, 명상 속에서 이루어

25) “무릇 본다는 것은 창조성을 지니고 있으며, 봄이 직각(intuition)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정신을 집중하여 볼 때에는 나의 정서와 사물의 이미지가 상호교류하여 부지불각 중에 인간의 정서와 사물의 이치가 서로 삼투한다.”(주광잠, 『시론』, 정상홍 옮김, 동문선, 1991, 79쪽.) “진정한 미감 경험은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며”(주광잠, 『미학입문』, 손성숙 역, 형설출판사, 1987, 43쪽.)

26) “미란 상상력의 가장 탁월한 활동 그 자체로 본 바슐라르가 아름다운 문학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상상력의 형이상학을 정립하려 했고”(김준오, 「현상학적 비평의 수용과 문제점」, 『현상학』, 고려원, 1992, 134쪽.)

27) 피에로 페루치,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윤소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9, 78-79쪽 참조.

28)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홍경호 역, 문공사, 1982, 62쪽 참조.

29) 장 메종뇌브, 『감정』, 김용민 옮김, 한길사, 1999, 106쪽.

30)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49쪽.

지는 고통스런 미적 경험임을 형상화하고 있는 윤동주의 순이 시편은 창작과정을 밝히려는 시론시인 것이다.

IV. 기독교 시편의 시적 변용과 시론시

윤동주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미지는 불 혹은 빛이다. 이 불 혹은 빛의 이미지는 프로메테우스 모티프와 관련되어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창조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작가의 화신이며 자유로운 예술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³¹⁾ 윤동주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시인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메테우스는 빛을 창조하는 비극적인 시인의 이중적인 모습을³²⁾ 상징하기 위해 그리스신화에서 가져온 상징적 이미지인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간」의 6연, 1941년 11월 29일)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참회록」의 5연, 1942년 1월 24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31) 장미영, 『나르시스의 연못』, 58-79쪽 참조.

32) “예술가의 이중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를 관류하는 주제이다. 기적과 위협을 동시에 수반하는 예술가의 이중적 속성, 예술가의 운명은 파르나스 산정의 뮤즈들과 어울리다가 돌연히 보헤미아의 처량한 처지로 몰락하거나, 영웅으로 우상화되었다가 순식간에 굴종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양극을 달린다. 이런 현상은 예술가의 운명에 달라붙은 이중적 속성에서 비롯한다.”(에른스트 크리스오토 쿠르츠, 『예술가의 전설』, 노성두 옮김, 사계절, 1999, 137-144쪽 참조.)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쉽게 씌어진 시」의 2연, 1942년 6월 3일)

이들 시는 순이 시편에 이어 씌어진 것인데, 빛을 창조하지만 고독하고 슬픈 시인의 이중적인 운명을 노래하는 시인론시라고 할 수 있다.

윤동주 시에서 시인은 빛을 밝히는 존재이며, 시와 시쓰기 및 시인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는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이마에 땀 흘리기·초·예수태초십자가 등과 같은 기독교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시의 창조라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시론시를 쓰고자 했던 시인의 의도와 무관한 시 해석이 나오게 된다. 초나 예수, 태초, 계시와 같은 기독교적 용어에 끌려 기독교 사상을 형상화한 시로 읽기 쉬운 것이다.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빠알간 꽃이 피어났네,
햇빛이 푸른데,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사랑은 뱀과 함께
독은 어린 꽃과 함께 (「태초의 아침」, 1941년)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또 태초의 아침」, 1941년 5월 31일)

다들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즈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젓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 올 게외다.(「새벽이 올 때까지」, 1941년 5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십자가」의 1, 4, 5연. 1941년 5월 31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뜨라.(「눈감고 간다」. 1941년 5월 31일)

이 5편의 기독교 시편은 창조(‘꽃이 피어남’)와 섭리(‘그 전날 밤에 마련됨’), 계시, 새벽 나팔소리, 십자가 등 기독교 이미지가 보인다는 점과 이 가운데 3편의 시가 1941년 5월 31일이란 같은 날짜의 창작일자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대립의 일치라는 모순어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테마의 시일 가능성이 있다.

사랑은 뱀과 함께/독은 어린 꽃과 함께(「태초의 아침」)
죄를 짓고/눈이/밝아(「또 태초의 아침」)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검은 옷을 입히시오//다들 살아가는 사람
들에게/흰옷을 입히시오//그리고/한 침대에/가즈런히 잠을 채우시오(「새
벽이 올 때까지」)
피로웠던 사나이/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십자가」)

밤이 어두웠는데/눈감고 가거라(「눈감고 간다」)

창조, 즉 존재의 본질은 대립의 일치에 있다는 통찰을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 시편의 수사학적 특징은 앞 장에서 살펴본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소년」)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눈 오는 지도」와 이들 기독교 시편이 모두 1941년 작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시편은 순이 시편과 함께 시의 창조에 대해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기독교 시편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시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읽어야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된다. 대립된 사물을 조화시키는 상상력은 태초와 같이 사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태초의 아침」), 시인이 되라는 하늘의 계시에 따라 눈 밝은 시인이 되어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것(「또 태초의 아침」),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요구된다(「십자가」), 태양을 사모하고 별을 사랑하는 아이라 할 수 있는 시인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눈을 감고 보는 상상력이란 특수한 정신능력을 길러야 하며,³³⁾ 이를 위해서는 삶의 현실을 무시해야 하며 불가피할 때만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눈감고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동주의 기독교 시편은 기독교 이미지를 통해 시의 창조, 시인의 사명과 현실적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시론시로 보아야 하며, 「팔복」도 시론시로 볼 필요가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3) “험릿은 생생한 상상력을 지닌 인간-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전에 그의 감각 기관에 무언가 인상을 남긴 그 무엇을 마음의 눈으로 응시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외적 사물을 본다.”(장경렬, 『코올리지: 상상력과 언어』, 60쪽 참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팔복」-마태복음 5장. 1940년 추정)

권영민이 편저한 문학사상 판은 「팔복」의 창작연대를 194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마 이 작품이 1940년에 씌어진 「위로」의 종이 뒷면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³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지만, 기독교 시편이 모두 1941년에 씌어졌고, 이들 시가 모두 기독교 이미지를 변용하는 창작 방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1941년 작품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수의 산상수훈을 변용하고 있는 이 시는 슬픔에 대한 예수의 역설적 사유를 창조적으로 이어받고자 한다. 슬픔이 지닌 부정적인 의미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자³⁵⁾ 하였던 운동주 시인의 의도는 「서시」와 마찬가지로 「팔복」의 2연을 1행으로 끝맺음으로써 충격을 주고자 하는 ‘놀라게 끝냄’의 형식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⁶⁾ 다만 운동주가 이 작품을

34) “이 작품(「팔복」-필자 주)은 「위로」가 씌어진 종이의 뒷면에 씌어 있음.”(『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민음사, 1999, 338쪽.) 운동주의 원전을 연구한 홍장학은 이 작품의 제작 연도를 1938-1942년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권영민의 민음사 판도 인용해 놓고 있다.(홍장학,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 287-288쪽 참조.)

35) “근본적인 지식이란 무엇인가. 본래적인 지식이란 오직 해석일 뿐이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야기되거나 실행된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곧 그것이 해석될 때 그것은 아직은 은폐되었던 새로운 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다.”(야스퍼어스, 『이성과 실존』, 황문수 역, 휘문출판사, 세계의 대사상 14, 1972, 361-362쪽 참조.)

36) 이상섭은 「팔복」이 ‘놀라게 끝냄’의 효과를 노린 작품으로 본 바 있다.(이상섭,

원고지에 옮겨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작품이 형상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를 ‘산상수훈의 약속에 대한 강한 회의’로³⁷⁾ 본 해석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 것이지만, 이 시가 시론시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을 변용한 시 「팔복」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성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시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감정은 가치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절대적으로 해롭고 무익한 열정이 슬픔이라는 스피노자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³⁸⁾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슬플 것이라는 말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 태초의 아침」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진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성서적 문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새벽이 올 때까지」는 종말의 날에 한 자리에 누워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 받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심판 받을 것이라는 누가복음 17장의 종말론적 윤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복」은 그러나 성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시가 아니라 슬픔이란 부정적 감정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작심리와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 시론시다. 이상섭은 윤동주의 기독교 시편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이나 반항으로 읽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윤동주의 기독교 시편은 “신앙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인간화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적 사고”가 나타난 시로 보는데,³⁹⁾ 이러한 이해는 시 「팔복」이 지닌 시론시적 성격에 한 발 더 다가선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241쪽 참조.)

37)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242쪽.

38) 장 매중너브, 『감정』, 79-81쪽 참조.

39) 이상섭, 『윤동주 자세히 읽기』, 253쪽 및 175쪽 참조.

운동주는 순이 시편에 이어 기독교 시편에서도 시의 창작원리인 영감과 기독교의 창조론을 결부시키고 있다.⁴⁰⁾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였듯이 시인은 상상력을 통해 사물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점에서⁴¹⁾ 기독교 시편은 무엇보다 시의 창조와 관련된 시라고 할 수 있다. 모순된 사물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예술적 형상사유가 다름 아닌 영감이고, 상상력이며, 명상이고, 사랑이며, 낭만적 동경이고, 아름다움이며, 직관이다.

운동주의 기독교 시편은 시인의 기독교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성서의 실존론적 해석과 그 시적 변용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⁴²⁾ 운동주의 기독교 시편은 기독교 신앙을 노래하는 기독교시가 아

40) “영감론은 르네상스 시학의 기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감론의 그 신비성을 상당히 제거하고 개인의 우수한 능력을 강조할 때 영감론은 창조론으로 전환된다. 시인은 창조자라는 생각이 가장 명쾌하게 전개된 글은 필립 시드니의 <시의 변호>이다. 그는 시, 즉 포에시스의 원의인 ‘만들다’는 말을 기독교적 창조의 의미로 군한다.”(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0, 재판, 134-135쪽 참조.)

41) “상상력을 행사할 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의 행위를 하는 셈이다.”(장경렬, 『코울리지: 상상력과 언어』, 39쪽.)

42) 한국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서양 자유주의의 도전은 1920년부터의 현상이며, 1930년대에 장로교회의 정통주의 성경관에 대한 도전이 그 절정에 달했다.(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1판 4쇄, 147쪽.) 1930년대 한국의 신학계는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세 가지 이해유형이 있었다. 박형룡의 근본주의적 교리적 이해, 김재준의 진보주의적 역사적 이해, 정경옥의 자유주의적 실존적 이해가 그것이다. 경남의 윤인구, 연전의 신학자 갈홍기, 송몽규의 당숙인 송창근과 김재준은 ‘신앙은 보수이요, 신학은 신진’이라고 할 만한 신학자였다.(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6, 5판, 136-142쪽 참조.) 키에르케고르를 즐겨 읽었던 운동주는 성경을 실존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태초의 아침」이나 「새벽이 올 때까지」와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운동주의 시에서는 종말론과 재림신앙을 믿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난다. 이것은 운동주가 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도 했지만,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운동주의 종말론 신앙을 고려할 때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나라 기독교 이미지를 변용하여 시의 창조성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론시인 것이다.

V. 화해와 인격미의 후기시와 시론시

기독교 시편 이후에 씌어진 윤동주의 시는 ‘습작기’의⁴³⁾ 시가 지닌 재기 어린 간명함과 시론시가 지닌 이론적 추상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오는 깊은 정신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박용철의 표현을 빌리면 ‘꼭지가 둔’⁴⁴⁾ 시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기독교 시편이 1941년 5월에 씌어진 것이라면, 같은 해 6월부터 시의 품격이 달라지고 있다. 6월에는 「바람이 불어」, 9월에는 「또 다른 고향」, 11월에는 「별 헤는 밤」과 「간」과 「서시」, 해를 달리 한 1942년 1월에는 「참회록」, 6월에는 「쉽게 씌어진 시」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뛰어난 작품에 한꺼번에 쓸 수 있었던 것일까. 초기시에서부터 이어져 온 명상의 모티프가 1941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돌아와 보는 밤」(1941년 6월)에서 그는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명상을 즐겼던 윤동주는 시 창작에 필요한 영감을 명상에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우창에 따르면 윤동주 시의 관심사는 자기실현의 문제인데, 윤동주는 심미적 발전을 통하여 윤리적 완성을 기하려는 충동이 강하다고 보

43) 윤동주는 자신의 초기시 59편이 실린 최초의 원고노트(1934. 12-1937. 3) 표지에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라는 제목을 달아 놓고 있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7-8쪽 참조.)

44) 박용철, 「시적 변용에 대해서」, 9쪽.

았다. 이런 지적은 운동주의 후기시의 특징인 윤리와 미가 잘 조화된 운동주의 시세계를 아주 잘 포착한 것이다. 김우창은 그러나 이런 지적에 이어서 운동주의 시에서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한 긴장된 의식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다.⁴⁵⁾ 김우창의 이런 해석이 운동주 시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운동주의 시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일치하는 시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온 해석인지 알 수 없지만, 필자가 보기에 운동주의 시는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시인으로서의 삶과 현실적인 생활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으나,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것 사이에서는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운동주의 시는 윤리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키에르케고르가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가 「새로운 길」과 「서시」이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45)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운동주의 시」,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158-159쪽 참조.

46) “신플라톤주의의 창도자인 플로티누스는 예술이 철학 못지않게 이른바 유일자(즉 최고의 신)에게 접근, 합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아름다움은 참됨과 착함과 동일체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형성한다는 것은 참됨 착함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 예술가는 신성한 유일자의 정신을 닮고 있어서(그것이 이른바 상상력이다.) 완전함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131-132쪽.)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새로운 길」. 1938년 5월 10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서시」. 1941년 11월 20일)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의 시에서는 기독교와 유교가 융합되어 있다.⁴⁷⁾ 「새로운 길」은 유교 경전 가운데 대학의 “네가 진정 하루 동안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란 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⁴⁸⁾ 유교의 지향점과 늘 새로움을 지향하는 시의 심미적 세계 사이에서 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윤리와 미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꼈던 키에르케고르와 달리 윤동주에게 있어서 윤리와 미는 행복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시」에서는 부끄럼 없이 살기를 바라는 윤리적 인식,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관심,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직관하는 미적 인식, 그리고 윤동주의 일관된 관심인 시인의 사명감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시적 상상력과 함께 잘 융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

47) 엄국현, 「윤동주 시에 나타난 유교적 기독교와 종말론」, 298쪽 참조.

48) 엄국현, 「윤동주 시에 나타난 유교적 기독교와 종말론」, 285쪽 참조.

다.⁴⁹⁾ 이것은 이질적인 사물을 결합하는 시적 상상력이 차원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인 윤리적인 것과 미적인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하나로 결합된 ‘화해’의 인격미를 잘 보여주는 시가 「새로운 길」과 「서시」라 할 수 있다.

「서시」의 1, 2행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의 미학사상은 인간의 도덕 정신도 심미적인 성질을 갖추고 있으며, 인격 정신 역시 심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맹자의 삼락 가운데 두 번째 즐거움과 관련된 「서시」의 1, 2행은 개체의 인격이 완전함으로서 야기되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맹자에게 있어서 도덕 수양의 문제는 인격미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아실현과 다름없기 때문에 선은 곧 미와 동일한 것이 된다. 맹자는 이것을 “충실한 것을 일러 미라고 한다.”(「진심하」)고 하였는데,⁵⁰⁾ 「서시」는 도덕과 미가 잘 융합된 인격의 정신미를 보여주는 시라 할 수 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죽음의 인식에 의해 더럽혀진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적 상상력’⁵¹⁾이 잘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존재의 불완전성과 부조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번민인데, 인간 조건의 근본적 범주인 번민의 문제를 새로움의 형이상학과 시적 상상력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시, 그것이 인간의 삶과 우주에 대한 모색과 통찰을 담고 있는 「새로운 길」과 「서시」라는 작품이 지닌 윤리적 미학이며, 윤희동의 시가 지닌 독특한 정신적 인격미인 것이다.

49) “맹자의 ‘충만한 아름다움’은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결합한 것이며, 장자의 ‘소요의 아름다움’은 미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결합한 것이다.”(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292쪽.)

50) 李澤厚 劉綱紀 주편, 『중국미학사』, 권덕주·김승심 공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재판, 202-213쪽 참조.

51) 쥘베르 뒤랑,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1985, 2쇄, 128쪽 참조.

시와 시인의 모티프는 기독교 시편 이후에 씌어진 작품인 「바람이 불어」, 「또 다른 고향」, 「길」, 「별 헤는 밤」, 「서시」, 「간」(이상 1941년 작), 「참회록」, 「흰 그림자」, 「쉽게 씌어진 시」(이상 1942년 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바람이 불어」의 3, 4, 5연. 1941년 6월)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또 다른 고향」의 3연. 1941년 9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길」의 6, 7연. 1941년 9월 31일)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중략)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뜀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별 헤는 밤」의 5연과 9연.
1941년 11월 5일)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간〕의 5, 6연. 1941년 11월 29일)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참회록〕의 4, 5연. 1942년 1월 24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쉽게 씌어진 시」, 1942년)

시적 자아인 ‘나’는 백골이 상징하는 일상적인 삶과 아름다운 혼이 상징하는 시인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분열되고 있다. 용궁의 유혹이 상징하는 일상의 편한 삶 때문에 시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 개에 비교해보면 지조 없는 일이며, 풀 한 포기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 프랑시스 잠이나 릴케와 달리 아직 부끄러운 이름의 무명 시인에 불과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시인의 아름다운 혼을 찾기 위해 자신을 반성하며 녹이 긴 거울을 닦는다. 시 때문에 포기한 연애나 시대적 관심과 같은 것을 돌아보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시라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자 한다. 불 도적한 죄로 끝없이 침전하면서도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보이며 홀로 걸어가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이다.

윤동주 시의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인격미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하늘의 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투철한 사명의식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최후의 나와 최초의 나는 시인의 삶을 결단하기 전후의 나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시인의 사명은 빛을 밝히는 것이다. 빛이란 무엇인가? 윤동주의 시론시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랑과 슬픔이란 시적 감정을 통해 사물과 존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것이다. 시인이 사물과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사랑과 슬픔이라는 시적 감정이 필요하며, 명상을 통한 영감이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감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재능’이어서 ‘힘들여 하는 작업’이 아니라⁵²⁾ 운동주의 말처럼 ‘쉽게 썩어지는 것’이다. 운동주의 시 창작원리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이, 홀로 침전하면서 시 쓰기에 열중한 운동주는 시를 쉽게 쓰는 경지에 이르지만, 그는 그러나 쉽게 썩어지는 자신의 창작방법을 부끄러워한다. ‘땀내와 사랑내’ 품기는 삶의 어려움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어려운 삶과의 만남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주의 인격적 사고는 시인으로서의 삶에 간혀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 앞에 열어 두고 있다. 그것은 인격적 사고이면서 동시에 시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자세일 것이다.

VI. 맺음말

운동주의 시는 명상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명상의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운동주의 명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본 결과 그의 명상은 산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의 산책은 박용철이 번역한 하우스만의 시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운동주의 초기시는 박용철이 번역한 시론이나 시인론과 관련되어 있었고, 순이 시편과 기독교 시편은 박용철의 순수시론과 관련되어 있었다.

운동주의 순이 시편은 명상 중에 나타나는 영감에 대해 노래하고 있거나, 감정이입에 의한 미적인 경험이 그 특징인 시적 인식을 노래하거나, 영감에 의한 시 창작의 어려움과 불가사의함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동주의 순이 시편이 시에 대한 시쓰기인 메타시의 성격을 지니

52) K. K. 루스벤, 『문학비평의 전제』, 윤교찬 옮김, 현대미학사, 1998, 143쪽 참조.

고 있음을 뜻한다. 운동주의 시는 무엇을 노래하는지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운동주 시의 메타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이 시편에 이어 씌어진 기독교 시편도 기독교 이미지를 변용하여 시의 창작원리인 상상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신의 우주창조와 관련된 이미지를 시인의 상상력에 의한 시적 창조로 변용하고 있는 것이다. 「태초의 아침」은 대립된 사물을 조화시키는 상상력에 대해, 「또 태초의 아침」은 하늘의 계시에 따라 눈 밝은 시인이 되어 좋은 시를 써야한다는 것을, 「십자가」는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눈감고 간다」는 시인의 삶과 상상력이 지닌 빛과 그늘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독교 시편은 기독교의 창조 모티프를 변용한 시론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과 그 내용이 다른 운동주의 기독교 시편에 대해 반기독교적인 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주가 기독교 신앙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운동주의 기독교 시편이 지닌 메타적 성격을 간과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시편 이후에 씌어진 운동주의 후기시는 화해의 미학이 그 특징이다. 윤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 그리고 미적인 것이 융합된 운동주의 개성적인 품격이 잘 드러난 후기시는 순이 시편이나 기독교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와 시인의 모티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시론시로 읽을 수 있는데, 운동주의 시론시에 나타나는 시적 인식은 사랑과 슬픔이란 시적 감정을 통해서 사물과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었다.

운동주의 시는 죽음과 재생의 기독교적 모티프가 나타나는 강인한 정신력의 최초의 시, 박용철이 번역한 키에르케고르의 시론과 시인론의 영향을 받은 초기시, 이어서 하우스만의 시론의 영향을 받은 순이 시편과 기독교 시편이 보여주는 시론시, 그리고 시론시의 이론적 추상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정신성이 잘 드러나는 후기시의 화해와 인

격미의 시세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운동주의 시에서 시와 시인의 모티프가 쉽게 발견되는 것은 운동주가 자신의 시에서 시의 창작원리나 시인론을 형상화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며, 운동주가 습작기에 동시를 쓴 것도 동심이 시의 창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운동주 시의 시론시적 특징은 운동주의 명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찾는 과정에서 운동주의 시가 박용철의 번역 시론 및 순수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은 무엇보다 운동주가 시의 창작일자를 밝혀놓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명상적인 시는 정신의 실존적인 깊이를 다루는 준주제적인 장르라는 사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운동주는 비지성적인 영감을 자신의 시 창작원리로 삼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감에 대한 이론적인 메타시를 쓰고 있다. 이것은 운동주의 시가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지성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의 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감, 명상, 상상력, 직관, 감정이입, 사랑, 슬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가 읽었던 모든 책을 뒤따라 찾아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권영민 편저, 문학사상사, 1997.
-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민음사, 1999.
- 『박용철 전집』(평론집), 홍문각, 1977.
- 권기호, 『시론』, 학문사, 1983.
-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 김우창, 「순들어 포함 하늘도 없는 곳에서-윤동주의 시」,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155-182쪽.
-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96.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0.
- 김준오, 「현상학적 비평의 수용과 문제점」, 『현상학』, 고려원, 1992, 125-140쪽.
- 박영주, 『송강 정 철 평전』, 중앙M&B, 1999.
-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 엄국현,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해석』, 둔석 최상운 선생 회갑논총간행위원회 편, 2000, 174-206쪽.
-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 연구」, 『신어어문학』 1집, 2004, 183-224쪽.
-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와 걸기의 모티프」, 『한국문학논총』 43집, 2006, 199-227쪽.
- 엄국현, 「윤동주 시에 나타난 유교적 기독교와 종말론」, 『한국문학논총』 46집, 2007, 269-306쪽.
- 엄국현, 「윤동주 시의 창작방법과 유교적 사유에 대하여」, 《김해문학》 20집, 2007, 14-22쪽.

-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3.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6.
- 이경옥, 「자유와 원칙의 화해: 코울리지의 시인과 비평가론」, 이상섭 외 20인, 『문학역사사회』, 한국문화사, 2001, 171-172쪽.
-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 이문재, 「T. S. 엘리엇과 자기 반영성」, 『포스터 모던 T. S. 엘리엇』,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37-258쪽.
-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0.
-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 이상섭, 『윤동주 자세히 읽기』, 한국문화사, 2007.
- 장경렬, 『코울리지: 상상력과 언어』, 태학사, 2006.
- 장미영, 『나르시스의 연못』,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90.
- 홍장학,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
- 李澤厚 劉綱紀 주편, 『중국미학사』, 권덕주·김승심 공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張少康, 『중국고전문학창작론』, 이홍진 옮김, 법인문화사, 2000.
- 張法(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백승도·이보경·양태은·이용재 옮김, 푸른숲, 1999.
- 朱光潛, 『시론』, 정상홍 옮김, 동문선, 1991.
- 朱光潛, 『미학입문』, 손정숙 역, 형설출판사, 1987.
- 今道友信, 『美論』, 백기수 역, 정음사, 1977.
- 폴 헤르나디, 『장르론』, 김준오 옮김, 문장, 1983.
- 피에로 페루치,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윤소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9.
-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홍경호 역, 문공사, 1982.

- 하우스만, 「시의 명칭과 성질」, 『박용철 전집』 2권, 1977, 51-75쪽.
- 야스퍼어스, 『이성과 실존』, 황문수 역, 휘문출판사, 1972.
- 에른스트 크리스오토 쿠르츠, 『예술가의 전설』, 노성두 옮김, 사계절, 1999.
- 장 메종뇌브, 『감정』, 김용민 옮김, 한길사, 1999.
- K. K. 루스벤, 『문학비평의 전제』, 윤교찬 옮김, 현대미학사, 1998.
- 쉴베르 뒤랑,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1985.

<Abstract>

On the Creative Principles of Poetry in Yoon Dong-Joo's Poems

Eom, Kook-Hyeon

Yoon Dong-Joo's poems are known as a resistant poetry. But his poetry is not a resistant poetry. The poems of Yoon Dong-Joo deal with the motif of meditation, poetry and poet. So his poems should be called a meditation poetry or poetics poetry.

The motif of meditation of his poetry is related with his habit of walking. His walking habit came from the poetics of Houseman who was England poet. Park Yong-Cheol has translated the Houseman's poetics. Yoon Dong-Joo's poetry is related with the Houseman's poetics which is translated by the Park Yong-Cheol.

The poems of Soonee deal with the inspiration which is come out from the meditation. The poems of Christianity are not a Christian poetry but a meta-poetry which describe writing poetry in regard to poetry. Yoon Dong-Joo's meta-poetry is related with the poetics of Park Yong-Cheol.

The late poems of Yoon Dong-Joo is characterized as having a beauty of harmony and personality. Its deal with the motif of poetry and poet. So the late poem can be read as a meta-poetry in common with the poems of Soonee and the poems of Christianity.

The Creative Principles of Yoon Dong-Joo's Poems are Inspiration and Imagination.

Key Words : Yoon Dong-Joo, Creative Principle, Meditation,
Inspiration, Imagination, Meta-Poetry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